Sheet형 교 재

2007-S-193

재해사례별 구조 및 이동



H-S-W00-03

1. 자동차 사고 시 구조

(1) 차는 안전한 장소에 세운다.

(2) 비상등을 켠다.

(3)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통행하는 차에게 신호를 보내준다(삼각판의 설치 등).

(4) 일단 문을 열어 보도록 한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차 안에서 창문을 내리도록 하고, 그마저 안되면 유리를 깨고 들어간다.

그 다음 주차를 시킨다.

시동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건다.

(5) 의식이 없는 환자와 척추 부상 가능이 있는 환자는 우선 손으로 머리와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6)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한다.

(7) 가능하다면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구급차에는 응급처치에 대한 훈련과 장비를 가지고 있다. 대개는 환자를 그대로 차안에 있도록 한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스트레스도가 높아져 혼란스러우므로 다쳤는지, 통증 유무 등을 알지 못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이차손상을 막을 수 있다.



Sheet형 교 재

2007-S-193

재해사례별 구조 및 이동



H-S-W00-03

2. 갇힌 공간에서의 구조

(1) 즉시 도움을 청한다.
(2) 그냥 뛰어들지 않는다.
(3) 현장에 있더라도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구조팀이 아니라면 갇힌 공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4) 도와줄 사람이 도착하면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조난자를 구한다.
(5) 밖에서 구조가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고 적절한 장비(호흡장비와, 안전장비나 구명줄)를 갖춘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조난자를 구출하도록 한다.
(6) 구급차를 부른다.
(7) 응급처치와 인공호흡을 한다. 필요하면 심폐 소생술을 한다. 심폐 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갇힌 공간에서의 구조



전기감전 시 구조

3. 전기감전 시 구조

전기충격을 받으면 전기는 우리 몸의 접촉한 부위를 통해서 전기가 몸 안으로 들어가 전기저항이 가장 적은 신경과 혈관을 타고 흐르게 된다. 전기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해 손상을 일으킨다.

(1) 실내에서 전기 감전이 있을 때 사람에게 접근하기 전에 먼저 회로 차단기, 안전기(두꺼비집), 실외 스위치를 확인하여 전기를 차단한다. 플러그가 망가지지 않았다면 플러그를 뺀다.

(2) 고압선에서 감전 사고가 일어나면 우선 전기를 차단하고 나서 환자에게 접근해야 한다. 환자에게 접근하는 중에 다리나 하체에 찌릿한 느낌이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춘다. 이는 전기가 흐르는 장소로서 전기가 한 쪽 발로 들어 와서 하반신을 거쳐 다른 발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때는 한 쪽 발을 들고 뒤로 돌아서서 안전한 장소로 깡총깡총 뛰어간다. 적절한 장비를 가진 전문가가 와서 전선을 절단할 때까지 기다린다.

(3) 전기줄이 차 위에 떨어졌을 때에는 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위험이 있을 때에는 차나 전선이 몸에 닿지 않도록 하여 뛰어 나오도록 시도하여야 한다.